

본당 소식

♣ 성탄 판공성사 안내

- 판공성사 기간 : 11월 30일(대림 제1주일)~12월 21일(대림 제4주일)
- 미사 시작 15분 전, 성전 고해소

♣ 대림 제3,4주일 손님 신부님 특강

- 이번 대림 제3,4주일에 로마 유학 중이신 조재익 세례자 요한 신부님이 오셔서 판공성사와 특강을 해주시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새로운 대림환을 이경진 카타리나 자매님께서 제작, 봉헌해주셨습니다.

♣ 교무금 안내

- 올 한해 교무금을 납부해주신 신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올 해 안으로 미납된 교무금을 완납, 내년도 교무금액도 책정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의 / 모임

- 사목 회의 : 12월 07일 (주일), 미사 후, 오라토리오
- 청년 회의 : 12월 14일 (주일), 미사 후, 오라토리오
- 1구역 모임 : 12월 13일 (토), 14:30, 서 리노 & 류 릿다 가정

♣ 지난주일 우리의 정성

- 봉헌금 229.20€ • 교무금 1,300.00€

전례 성가

- 입당 : 대림초 점화
- 봉헌 : 511 (미약하온 우리 제물)
- 성체 : 170 (자애로운 예수)
169 (사랑의 성사)
- 파견 : 91 (구세주 빨리오사)

전례 봉사

이번 주일(11월 30일)	다음 주일(12월 7일)
1독서: 강한 프란체스코	1독서: 장민수 사도요한
2독서: 박수정 클라라	2독서: 김우진 크리스티나
복 사: 안태오 마태오 / 강윤아 헬레나	복 사: 문수빈 미카엘라 / 변가인 헬레나

밀라노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CHIESA SANTI MARTIRI COREANI Oratorio di San Rocco al Gentilino (Piazza T. Lucrezio Caro 7, Milano)

본당신부 : 조병진 베니노

- 총회장: 변의용 베네딕토 ·부회장: 정상현 안토니오 ·총무: 박건욱 레오
- 전례위원장: 이민찬 비오 ·성모회장: 김효경 릿타 ·외교위원장: 김산영 올리아
- 청소년위원장: 이승준 다니엘 ·청년구역장: 진하림 글라라
- 1구역장: 유정연 릿타 ·2구역장: 허희숙 마리아 ·3구역장: 강한 프란체스코

2025년 11월 3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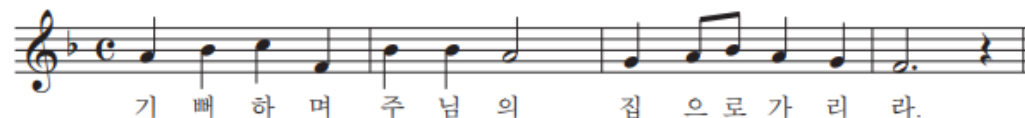
(자) 대림 제1주일

미사 전례

본기도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 마음을 이끄시어
저희가 이 세상에서 옳은 일을 하며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하시고
마침내 하늘 나라에 들어가 그리스도 곁에서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화답송



- “주님의 집에 가자!”할 때 나는 몹시 기뻐노라. 예루살렘아, 네 성문에 우리 발이 이미 서 있노라. ◎
- 그리로 지파들이 올라가네. 주님의 지파들이 올라가네. 이스라엘의 법을 따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네. 그곳에 심판의 왕좌, 다윗 집안의 왕좌가 놓여 있네. ◎
- 예루살렘의 평화를 빌어라. “너를 사랑하는 이들은 평안하리라. 너의 성안에 평화가 있으리라. 너의 궁 안에 평안이 있으리라.” ◎
- 나의 형제와 벗들을 위하여 비노라.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주 우리 하느님의 집을 위하여 너의 행복을 나는 기원하리라. ◎

제1독서 (이사야서 2,1-5)

1 아모츠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환시로 받은 말씀.
 2 세월이 흐른 뒤에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집이 서 있는 산은 모든 산들 위에 굳게 세워지고 언덕들보다 높이 솟아오르리라.
 모든 민족들이 그리로 밀려들고
 3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 오면서 말하리라.
 “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느님 집으로!
 그러면 그분께서 당신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시어 우리가 그분의 길을 걷게 되리라.”
 이는 시온에서 가르침이 나오고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이다.
 4 그분께서 민족들 사이에 재판관이 되시고 수많은 백성들 사이에 심판관이 되시리라.
 그러면 그들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리라.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거슬러 칼을 쳐들지도 않고 다시는 전쟁을 배워 익히지도 않으리라.
 5 야곱 집안아, 자, 주님의 빛 속에 걸어가자!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13,11-14)

형제 여러분, 11 여러분은 지금이 어떤 때인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잠에서 깨어날 시간이 이미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12 밤이 물러가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니 어둠의 행실을 벗어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13 대낮에 행동하듯이, 품위 있게 살아갑시다.
 흥청대는 술잔치와 만취, 음탕과 방탕, 다툼과 시기 속에 살지 맙시다.
 14 그 대신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십시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 저희에게 당신 자애를 보여 주시고 당신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

복음 (마태오 24,37-44)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37 “노아 때처럼 사람의 아들의 재림도 그러할 것이다.

38 홍수 이전 시대에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면서,
 39 홍수가 닥쳐 모두 휩쓸어 갈 때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사람의 아들의 재림도 그러할 것이다.
 40 그때에 두 사람이 들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41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42 그러니 깨어 있어라. 너희의 주인이 어느 날에 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43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밤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깨어 있으면서 도둑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44 그러니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보편 지향 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인류의 빛이신 주님, 대림 시기를 시작하는 교회를 굽어살피시어, 어둠의 행실을 벗어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서, 깨끗한 마음으로 구세주를 기다리게 하소서.
2. 공직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의의 주님, 이 땅의 공직자들을 이끌어 주시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모든 일에 공정하게 하시며, 특히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3. 예비 신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은총의 주님, 주님의 진리와 교회의 가르침을 배우며 믿음을 키워 가는 예비 신자들을 살피 주시어, 교회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새 삶을 얻게 하소서.
4. 지역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인자하신 주님, 저희 지역 사회의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일들은 삼가고, 저마다 삶의 자리에서 기쁘고 즐겁게 나아가며 서로 힘이 되게 하소서.

영성체 후 기도

주님, 이 성찬에 참여한 저희가
 덧없이 지나가는 현세를 살면서도
 지금부터 천상 양식에 맛들여 영원한 것을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